행복한 교회
자라나는 우리





6월 제직회-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자비사역팀
(섬김의 즐거움을 누리는 김순영, 김현지, 박태원, 김혜영)

예배 순서

묵도와 부름		인도: 오종향 목사
사도신경		
찬 양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광야를 지나며	인도자+찬양팀
합심 기도		
성경 봉독	열왕기상19:3-8	오연총/다함께 기립
설 교	한 끼의 떡, 사십 일의 길	오종향 목사
결단의 침묵		
응답 찬송	하나님의 은혜	
헌 금		
안 내		
축 도		
점심 친교		다같이
조 모 임	*방문자/새가족은 오종향 목사와 함께	

오늘의 섬김과 봉사

예배 안내

- 이번 주일: 박민수
- 다음 주일: 윤재연, 이수민

성경봉독

- 이번 주일: 오연총
- 다음 주일: 이시원

청소정리

- 이번 주일: 헤세드 조
  (김성배 김화길 문영식 이정우 박민수)
- 다음 주일: 조이 조
  (우문주 강자은 김순영 김혜영 이은주 배지은 장수정)

후원 선교사님 근황

-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 웹판에는 근황을 싣지 않습니다.

- 김남진/김성은 (영국기도선교)
  : 12차 기도선교가 7/6-7/17 잉글랜드 지역에서
  10개 기도팀이 참여하여 진행
- 임일혁/송경남 (몬트리올 이주자 사역)
  : 9/23부터 한국 방문 예정

소그룹 나눔

1) 오늘 설교를 듣고 가장 와닿은 한 가지는?

2) 오늘 주신 메세지를 내 삶에 연결한다면?

오늘의 말씀

대표 낭독자: 오연총 (다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열왕기상 19:3-8

열왕기상 19장
3.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 두고
4.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5. 그러고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6.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 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7.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네 갈 길이 아직 멀었다.”
8.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 산에 이르렀습니다.

다같이: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일 안내

-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예배 후 점심 함께하는 교제시간이 있습니다.
- 소그룹모임이 예배후에 있습니다.
- 오늘 점심 메뉴는 김밥, 구운계란, 소금빵(박태원 섬김),
  미나리 부침개 (옥진복 김현지 섬김) 입니다.
- 점심 준비해주신 모든 손길에 감사합니다.

7월의 말씀

- 7월 주제는 "뜨거운 여름, 상쾌한 복음!"입니다.
- 7월 주일예배 주제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 7월 금요기도회 주제는 〈〈더위를 식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뉴시티 이모저모

- 제직회 스터디 도서 〈〈여리고 가는 길〉〉이 도착했습니다.
  (20% 할인 구매)
- 농산물 선물 (마늘, 양파, 고추 –오목사 가정에서 드립니다)
- 오늘 소그룹모임 이후에 피아노 위치 조정 작업을 합니다.
- 자모실 전기 스위치를 수리했습니다.
- 남자화장실 소변기를 수선했습니다.
- 오목사가 아이스크림을 쏩니다(냉동실).
- 주일에 음식 섬기실 분 미리 신청 바랍니다.
- 헌금: 우리은행 1005-003-606016 뉴시티교회

7-8월 모임 일정

- 재정팀 정기모임: 7/4 주일 2:30
- 찬양팀 음향 조율: 7/18 주일 2:30
- 소그룹 조장 모임: 7/25 토요일 12시
- 제직회 정기 모임: 8/30 주일 1:15

주일학교 안내

유치부

- 유치부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1:15-12:00
- 오늘의 말씀: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님
- 이번 주일은 유은희 집사님께서 예배 인도해주십니다.
- 여름 물놀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초등부

- 오늘은 6월 도장 시상식이 있습니다.
- 점심식사 후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 여름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섬겨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청소년부

- 6월 청소년부 예배: 이번 주일은 브라움홀에서 예배드립니다.
  (찬양인도: 김하람, 악기: 이세린, 디자인: 안나현, 설교: 최은총)
- 6월 청소년부 예배 세팅으로, 김화길 교우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1박 2일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섬겨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7월 학부모 기도회 안내

- 다음 주일(7/5) 오전 10:00-10:20, 2층 교육부실
- 다음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할 영적부모들을 기다립니다.

다음 날 아침의 은혜

큰일을 치른 다음 날 아침이, 정작 그 일을 하던 날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끝나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몸이 가라앉고 마음이 텅 빕니다.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서 무너진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다 쏟아낸 자리에서 더 자주 주저앉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본 사람이, 한 장 뒤에는 광야로 도망쳐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 종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처방은, 책망도 말씀도 아니라 잠이었습니다. 이어 갓 구운 떡을 주시고, 그 힘으로 사십 일을 걷게 하셨습니다.

잠과 음식과 걷기. 회복은 거창한 영적 사건이 아니라, 자고 먹고 다시 걷는 몸을 통해 왔습니다. 산티아고의 원조는 성경의 엘리야의 40일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몸으로 살아내라」 부르는 까닭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큰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고, 감사함으로 먹고, 한 걸음 내딛는 매일의 작은 걸음이 모여 결과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성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몸을 돌보는 것은 나의 책임이고, 그 영혼과 육체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봅니다. 무너진 엘리야를 일으킨 것은 한 천사의 손길이었습니다. 어루만져 깨우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먹였습니다. 재촉 없이 그의 보폭에 맞추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됩시다. 다 쏟아내고 "이제 됐습니다" 하며 나온 지체를, 따뜻한 손길과 한 그릇의 음식과 물로 맞는 공동체. 주일마다 함께 식탁을 차리고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그 작은 섬김이, 지친 한 사람을 다시 걷게 하는 천사의 손길입니다.그렇게 회복된 사람은 힘을 내어 다음 길을 걷습니다.

엘리야는 사십 일을 걸은 끝에, 무너져 누웠을 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호렙산에서 듣습니다. 회복은 그 이상입니다. 엘리야를 먹인 떡과 물은 잠시 힘이 되었지만,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은 죽음을 이기신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요 "생명의 음료"입니다.

이 한 주를 무겁게 보내고 나오신 분께 본문은 먼저 말합니다. 자도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잘 자고 잘 먹는 것이 가장 정직한 믿음의 첫걸음일 때가 있습니다. 빈손을 먼저 주님께 펴고, 충분히 자고, 감사함으로 먹고, 다시 한 걸음 걸으십시오. 그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함께 걷게 하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천사의 손길이 되길 바랍니다.

오종향 목사 드림